



“나눔 가득한 지역사회 만들고 싶다” 멜론도 아너 소사이어티·나눔명문기업 가입

제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기부자가 나타났다. 주인공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멜론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문성원 대표다.

문 대표는 지난 10일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이하 사랑의열매)의 고액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의 4호 법인으로 가입했다. 2016년 4월 제주 아너소사이어티 48호 회원으로 가입한 문 대표는 제주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



와 ‘나눔명문기업’에 모두 가입했다. 이로써 멜론도는 제주에서 나눔명문기업 4번째, 전국에서는 136번째 회원기업이 됐다.

제주Y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에 후원금



제주Y신협(이사장 고정연)은 조합 창립 41주년을 기념해 신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허영진)를 통해 신협 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효돈119 추석 맞이 어려운 이웃 위문품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센터장 현상용)와 의용소방대(남성대장 현은규, 여성대장 김은순)는 지난 10일 관내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삼도1동 부녀회 40가구에 김치 전달



제주시 삼도1동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아)는 지난 10일 부녀회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40가구에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를 전달했다.

아성기술단 추석맞이 사랑나눔 기금



(주)아성기술단(대표 현봉식)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동정

매일올레시장 제주구매·현안청취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4일 추석을 앞두고 서귀포 전통시장인 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제주 구매와 더불어 시장상인들의 현안 사항을 청취할 예정.

부녀회 추석맞이 김치나눔 행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4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노형동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김치 나눔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

제주청년밸리 정책토론회 좌장
◇문준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당 제1사회실에서 열리는 가칭 ‘제주청년밸리’ 조성 가능성 탐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할 예정.

통계업무진흥 공로 국무총리 표창
◇김철수 제주대 전산통계학과 교수 제27회 통계의 날(9월 1일)을 맞아 지역통계, 사회통계조사 개발과 활발한 통계관련 교육연구 활동 등 통계업무진흥 유공자로 인정받아 최근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임

오인택(사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연임됐다. 제주도는 2020년 지방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오 이사장이 우수한(최고등급) 실적을 거둬 연임 사유를 충족했고 재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았으며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 연임을 결정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 특별보증 등 피해극복을 지원했다.

서귀포석재사 영천동에 이웃사랑 물품



서귀포석재사(대표 박한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 영천동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달라며 밀치 20상자(7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한전KPS(주)남제주 희망터전 후원금

한전KPS(주)남제주사업소(소장 한재필)은 지난 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를 통해 2021년 희망터전 만들기 후원금 605만원을 전달했다.

희망터전만들기 사업은 한전KPS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적십자사 경로당에 탐나는전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0일 제주시 일도2동 관내 경로당 3곳을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따뜻한 명절을 위한 탐나는전 지역사랑 상품권 100매(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은 NH농협은행제주영업부 강경금 부장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추석을 앞두고 일도2동 관내 어르신들께 온정을 전하기 위해 경로당 3곳에 전달됐다.



김정봉 위원 나눔뱅크에 생필품 기탁

제주시 건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정봉 위원은 지난 8일 건입동주민센터(동장 김태식)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건입동나눔뱅크’에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

김정봉 위원은 폐휴지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해마다 후원물품을 건입동나눔뱅크에 기탁해오고 있다.



구좌라이온스클럽 마스크 기부



구좌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지홍)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마스크 1만4000매를 전달했다.

서귀포중앙교회 사랑나눔 물품 기탁



서귀포중앙교회(담임목사 이상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 송산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햄·참치세트를 기탁했다.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 20,000원 (후기 적합관리비용)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 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WIDEX®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석사

언어재활사